

BOK 이슈노트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이병록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과장
Tel. 02-759-4213
lbr1225@bok.or.kr

노현주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 조사역
Tel. 02-759-4454
hjnh1357@bok.or.kr

2020년 12월 29일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과 같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하락세는 가파른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리물가 변동이 소비자물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의 기여도는 2018년 -0.12%p, 2019년 -0.14%p에서 금년(1~11월) 중 -0.35%p로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7년말 대비 금년 11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 기여도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관리물가 하락세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내 관리물가 비중에 비추어 보면, 관리물가는 근원물가를 이용한 기초적 물가흐름 판단 시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적 물가흐름 판단시 관리물가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관리물가의 하락세가 확대된 것과 달리 내년에는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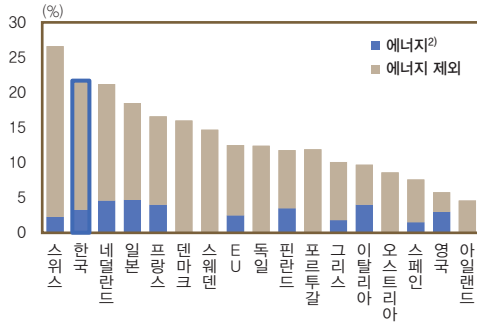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웅 조사국장, 김승원 물가분석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께 감사를 표합니다.



I. 검토배경

관리물가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¹⁾에 비해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그림 1〉 참조) 관리물가의 변동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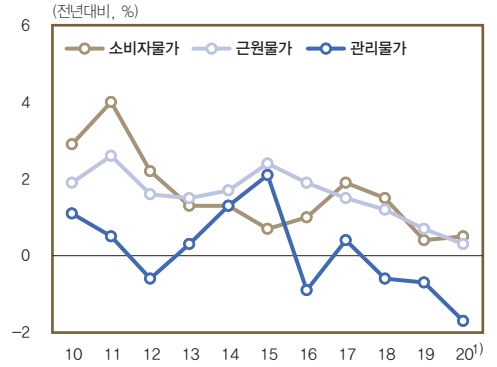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의 관리물가 비중¹⁾



주: 1) 소비자물가(EU국가는 HICP)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 기준)
 2) 전기, 도시가스 등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최근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은 관리물가의 하락세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를 이용한 기초적 물가흐름 판단 시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 소비자물가 및 관리물가 상승률



주: 1) 2020년은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이에 본고에서는 관리물가의 최근 동향과 함께 소비자물가 및 기초적물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물가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우선 II장에서 최근 관리물가의 동향과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본 후, III장과 IV장에서 소비자물가와 기초적 물가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내년 및 후년 중 관리물가의 흐름을 예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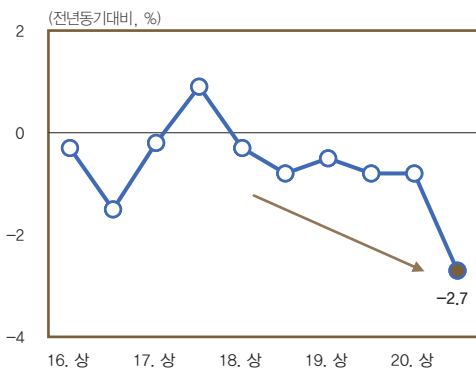
1) 주요국의 관리물가 작성현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관리물가의 최근 동향 및 변동요인

1. 최근 동향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2017년 하반기에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7~11월 기준)에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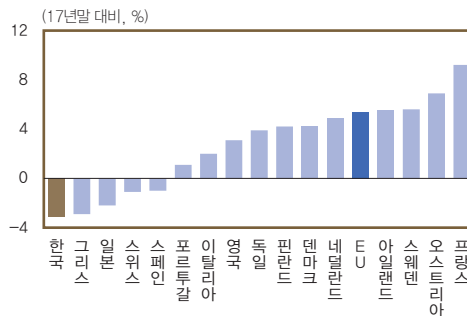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관리물가 상승률¹⁾



주: 1) 2020년 하반기는 7~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하락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관리물가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위스뿐이며,²⁾ 2017년말 대비 금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주요국의 관리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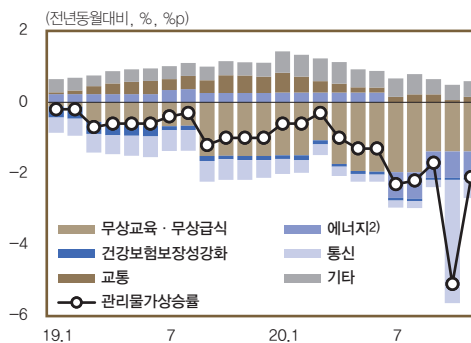


주: 1) 2020년 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2. 주요 변동요인

최근 관리물가의 하락세가 확대된 것은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주요 관리물가 변동요인¹⁾



주: 1) 각 요인·품목별 관리물가 기여도
2)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료: 통계청, 자체 사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정책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시행으로 고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가 크게 낮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리물가의 하락세를 주도

2) 최근 3년간 주요국의 관리물가 상승률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9월)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금년 1학기(4월)에는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학기 중에는 상당수 지역에서 고1 학생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³⁾ 무상급식은 2018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점차 시행 지역 및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지속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검사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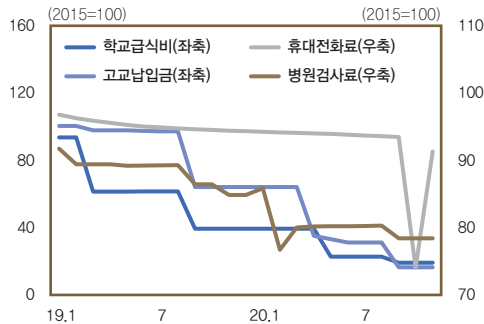
통신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저가 요금제⁵⁾ 및 선택약정 할인폭⁶⁾ 확대가 시차를 두고 휴대전화료에 반영되면서 관리물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더해 금년 4/4분기 중에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4차 추정)의 영향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부정책이 관리물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에 반영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

최근 관리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하회함에 따라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⁷⁾ 반면 관리제외물가⁸⁾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상회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의 기여도는 2018년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는 그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7〉 참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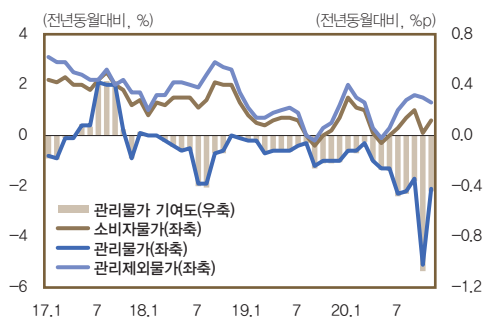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관리물가 품목의 가격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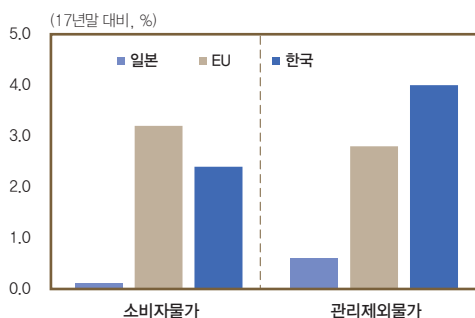
3)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행 시점 및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입원료, 치과 및 한방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입원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 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2018년 중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6) 2017년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폭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었다.
 7)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시행, 통신비 지원 등의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202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20년 12월 17일).
 8) 소비자물가 품목에서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9)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리물가의 기여도는 2018년 -0.12%p, 2019년 -0.14%p에서 금년(1~11월) 중 -0.35%p로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7〉 관리물가 및 관리제외물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9〉 주요국 물가상승률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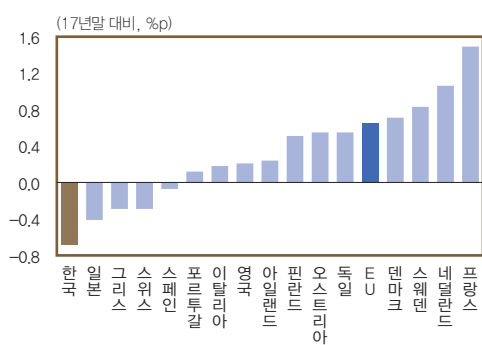


주: 1) 2020년11월 현재 2017년말 대비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금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말 대비)에 대한 관리물가의 기여도가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이에 따라 2017년말 대비 금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누적상승률은 2.4%로 EU 평균(3.2%)보다 낮은 수준이나, 관리제외물가 상승률은 4.0%로 EU 평균(2.8%)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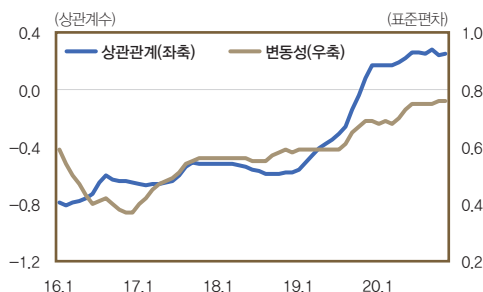
한편 과거에는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¹⁰⁾되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와 달리 최근 관리물가 상승률이 관리제외물가 상승률과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주로 기인한다. 관리물가 상승률과 관리제외물가 상승률 간 상관계수가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성(표준편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그림 8〉 주요국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¹⁾ 기여도



주: 1) 2020년11월 현재 2017년말 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그림 10〉 관리물가-관리제외물가 상관관계¹⁾와 소비자물가 변동성²⁾ 간의 관계



주: 1) 해당월 포함 직전 48개월의 월별 상승률을 대상으로 계산한 상관계수
2) 해당월 포함 직전 48개월의 월별 상승률에 대한 표준편차
자료: 자체 시산

10) 자세한 내용은 「BOK 이슈노트」 No.2018-7(“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2018년 7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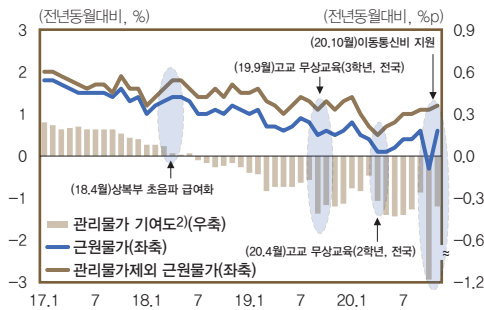
IV. 기초적 물가흐름에 대한 영향

최근의 관리물가 하락세 확대는 기초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적 물가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내에서 관리물가 품목¹¹⁾이 차지하는 비중(23.4%, 가중치 기준)이 높아 관리물가의 변동은 근원물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관리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근원물가 상승률과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근원물가¹⁾ 및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2) 관리물가(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제외)의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최근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관리물가(에너지 제외)의 하락세가 확대되면서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 초중반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1%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근원물가¹⁾ 및 관리물가 기여도

	2018년		2019년		2020년	
	상	하	상	하	상	하 ²⁾
근원물가(%)	1.3	1.1	0.8	0.7	0.4	0.3
- 관리물가 ³⁾ 의 기여도(%p)	0.0	-0.1	-0.2	-0.3	-0.3	-0.6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1.6	1.5	1.3	1.3	0.9	1.1

주: 1) 식료품·에너지 제외
 2) 7~11월 기준
 3)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제외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적 물가흐름 판단 시 관리물가가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²⁾

11) 관리물가품목 중 근원물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는 제외하였다.
 12)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를 공개하고 있다.

V.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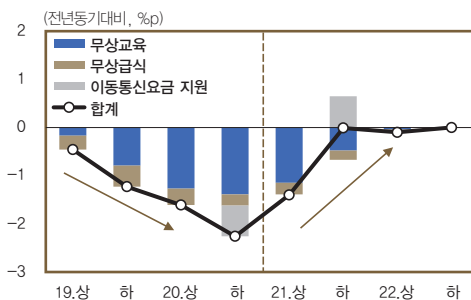
내년에는 최근의 관리물가 하락세 확대를 주도했던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으로 인한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금년 중 시행된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4/4분기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 따른 지지효과가 내년에는 관리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2 참조〉).

한편, 내년에도 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¹³⁾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 영향은 교육·통신 관련 정책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2022년에는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고 일부 관리물가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리물가 상승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림 12〉 주요 정부정책의 관리물가 기여도



자료: 자체 시산

〈표 2〉 내년중 주요 정부정책 시행 계획

구분	시행 시점	내용
고교 무상교육	2021년 3월	전북 및 대구·경북 ¹⁾ 1학년 확대 시행
고교 무상급식	2021년 3월	서울 1학년 및 대구·경북 1~2학년 확대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1년 상반기	흉부 초음파 급여화
	2021년 하반기	척추 MRI 및 심장 초음파 급여화

주: 1) 금년 1학기중 1학년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2학기에는 중단)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자체 서베이

13) 내년에도 MRI 및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록 1〉

주요국의 관리물가 작성현황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리물가 작성 기준은 없으나, 관리물가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EU의 경우 Eurostat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품목과 인허가·신고 등으로 간접적인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관리물가를 공식적으로 편제하고 있다.

EU의 관리물가 편제 현황

구분	주요 품목
▶ 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fully administered prices)	대중교통요금, 쓰레기 수거료 등
▶ 승인·인가 등을 통해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 (mainly administered prices)	의료비, 에너지요금 등

자료: Eurostat

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시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은행에서 전기·수도·가스 및 공공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관리물가를 시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우리나라의 관리물가는 46개 세부품목¹⁴⁾을 대상으로 산출된다. 관리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10.0% 수준이나, 가중치 기준으로는 21.7%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관리물가 비중¹⁾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품목수 기준	3.1	10.5	10.2	5.1	7.9	10.0
가중치 기준	5.8	12.4	16.5	9.7	18.6	21.7

주: 1) 소비자물가(유럽국가는 HIC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14) 품목성질별 분류상 공공서비스 및 전기·수도·가스에 포함되는 품목과 학교급식비, 병원검사료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들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별첨 1〉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구성품목

공급주체 ¹⁾	정부재정지원 ²⁾	품목명	관리물가 내 비중(%)
공공부문 (31.3%) [15개]	—	상수도료	2.3
		하수도료	1.3
		쓰레기봉투료	0.3
		우편료	0.0
		고등학교납입금	2.3
		국립대학교납입금	1.0
		국립대학원납입금	0.2
		열차료	1.0
		도로통행료	0.8
		도시철도료	1.6
		전기료	7.8
		도시가스 ³⁾	6.8
		지역난방비 ³⁾	0.7
		행정수수료	0.5
		담배	4.7
민간부문 (68.7%) [31개]	지원 (41.8%) [23개]	유치원납입금	1.5
		보육시설이용료	0.8
		사립대학교납입금	6.0
		전문대학납입금	1.2
		사립대학원납입금	0.8
		조세약	2.3
		병원약품	1.4
		치과보철료	2.9
		외래진료비	7.5
		한방진료비	0.6
		약국조제료	0.8
		치과진료비	2.5
		입원진료비	4.0
		요양시설이용료	0.4
		병원검사료	0.7
		시내버스료	4.3
		시외버스료	0.6
		고속버스료	0.3
		택시료	1.6
	남자학생복	0.2	
	여자학생복	0.2	
	교과서	0.1	
	학교급식비	0.9	
	미지원 (26.9%) [8개]	정화조 청소료	0.3
		부동산중개수수료	0.8
		방송수신료	1.5
		유선전화료	0.6
휴대전화료		16.6	
인터넷이용료		2.6	
국제항공료		1.3	
보험서비스료		3.2	

주: 1) 공공 및 민간 공급이 혼재된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 기준

2) () 내는 관리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 기준), [] 내는 품목 수

3)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 민간부문이 공급하더라도 공공부문에 의해 결정되는 원료비가 품목가격의 주된 구성요소인 경우 공공부문 관리물가로 분류

〈부록 2〉

최근 주요국의 관리물가 상승률

국가	(전년대비, %)			(2017년말 대비, %, %p)	
	2018	2019	2020 ¹⁾	누적상승률 ²⁾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
한국	-0.6	-0.7	-1.7	-3.1	-0.7
그리스	0.2	0.4	-1.3	-2.9	-0.3
일본	1.6	0.7	-2.6	-2.2	-0.4
스위스	-0.2	-0.1	-0.7	-1.1	-0.3
스페인	1.4	-0.1	-1.0	-1.0	-0.1
포르투갈	1.3	0.2	-0.6	1.1	0.1
이탈리아	2.1	1.8	-3.6	2.0	0.2
영국	4.9	4.0	-1.0	3.1	0.2
독일	1.4	1.6	1.5	3.9	0.6
핀란드	0.7	2.9	1.3	4.2	0.5
덴마크	1.3	1.4	1.8	4.2	0.7
네덜란드	2.1	3.2	-0.9	4.9	1.1
EU	2.2	2.1	1.1	5.4	0.7
아일랜드	0.9	0.3	1.8	5.5	0.2
스웨덴	1.3	2.0	2.4	5.6	0.8
오스트리아	2.8	2.2	2.2	6.9	0.5
프랑스	3.6	2.6	2.4	9.2	1.5

주: 1)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 2020년 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 Eurostat

〈부록 3〉

교육·통신·의료 관련 주요 정부정책¹⁾

구분	시행 시점	내용	
교육	고교 무상교육	2019년 3월	충남 전학년, 전남 1학년 시행
		2019년 9월	전국 3학년 시행 ²⁾
		2020년 4월	전국 2학년 확대 시행 ³⁾
		2020년 9월	일부 지역(서울·부산 등 10개 지역) 1학년 확대 시행 ⁴⁾
		2020년 12월	일부 지역(경기·인천) 1학년 확대 시행
	고교 무상급식 ⁵⁾	2018년 3월	광주 2학년 확대 시행
		2018년 9월	울산·전남·제주 전학년 시행
		2019년 3월	대전·광주·충북·충남·경남 전학년 및 서울·부산 3학년 시행
		2019년 9월	경기 전학년 시행
		2020년 5월	서울·부산 2학년 확대 시행 및 대구·경북 3학년 시행
2020년 9월	부산 1학년 확대 시행		
무상교복	-	중·고교 무상교복 확대 시행중 ⁶⁾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2018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만 65세 이상)
		"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⁷⁾
		2019년 1월	충치 치료(만 12세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019년 2월	공팔·방광·항문 초음파 급여화
		2019년 3월	구순구개열 환자(만 6세 이하) 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019년 4월	근골격계 질환자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019년 5월	두경부 MRI 급여화
		2019년 9월	전립선 초음파 급여화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2020년 9월	눈 초음파 급여화		
통신	요금제 개편 ⁸⁾	2018년중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이동통신비 지원	2020년 10월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전국민 대상 2만원 지원(1회 ⁹⁾)

주: 1) 2018년 이후 시행 기준

2) 전남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3) 대구·경북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 학년(1학년의 경우 1학기만)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4) 강원은 2분기(2020년 6월)부터 시행

5) 인천·강원·전북 전학년 및 광주 3학년의 경우 기 시행

6) 경기 성남에서 2016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을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중

7) 상급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동네병원은 2019년 7월부터 적용

8)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개편

9) 2만원 미만의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잔여 지원금이 이월되어 지원

자료: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및 자체 서베이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경제전망”, 보도자료, 2020년 12월 17일.

박동준 · 임춘성 · 이용원 · 김미주(2018),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 BOK 이슈노트 No.2018-7.

Shintani *et al.* (2016), “Administered Prices in Japan: Institutional Comparisons wi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ank of Japan Review 2016-E-9.

Eurostat (2018),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 Methodological
Manual, November 2018.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0-16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64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